더 깊어지는

이웃사랑

2024
Vol. 273



YouTube Instagram 홈페이지

더 깊어지는

이웃사랑

2024
Vol. 273

발행일 2024년 11월
발행처 예수병원
발행인 예수병원장 신충식

편집인 김병선(홍보실장)
기획 예수병원 홍보실
사진 김내성
디자인 두인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홈페이지 www.jesushospital.com

04
개원 126주년 기념
개원 126주년 기념예식
개원 126주년 기념 사진전
40년 근속자&정년퇴직자 한마디

08
센터 견문록
응급의료센터

12
병동소개
응급센터 간호사실

14
예수병원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이대영 단장
지역환자안전센터 박종필 센터장

16
선교국 소식

22
동문과 함께
김임신경정신과의원

24
그곳에 가면
신안 소악도, 섬티아고 순례길

26
선교 칼럼
이광재 재활의학과장

28
PMC Doctor
환자가 뽑은 명의

29
내가 사랑한 주인공
34병동 빈영주 책임간호사

30
We are PMC
예수병원 협력병원 소개

31
언론 속 PMC
PMC 뉴스

36
후원 캠패인
건강한 미래 후원

38
Schedule
진료일정 안내



예수병원 개원 126주년 기념예식 성료

예수병원은 지난 11월 1일, 개원 126주년을 맞아 예배실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예식을 가졌다. 김선중 예수병원 원목 실장의 인도로 개원 126주년 기념예식의 시작을 알렸다. 제1부 예배는 임현희 예수병원유지재단 총무이사의 기도와 함께 “처음 사랑이여”라는 주제로 고영환 이사장의 말씀 선포로 1부 예식이 진행됐다. 제2부에서는 신충식 병원장의 기념사와 함께 병원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직원 한분 한분을 소개하며 이를 대상으로 장기근속상(10주년부터 40주년)과 모범직원에게 감사패 시상식이 진행됐다. 고영환 이사장은 “126년이라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지역사회에 의료를 통한 봉사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예수병원 직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초대 원장인 마티 잉골드의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허락하신 것은 모든 여기 모인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신충식 병원장은 “올해부터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어려움이 동반하여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고난과 시련이 있다”, “우리는 126년 동안 한결같이 더 큰 어려움도 잘 헤쳐오면서 특별한 힘을 느꼈으며, 그 힘의 원천은 여기 모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부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소회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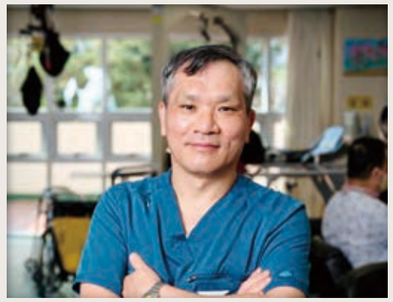
개원 126주년 기념 사진전 ‘그때, 예수병원 사람들’

예수병원 126주년 기념 사진전이 ‘그때, 예수병원 사람들’을 주제로 예수병원 본관 2층 로비에서 11월 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열린다. 이번 사진전은 예수병원에서 지난 30년간 예수병원 지역사회 보건과와 홍보실에서 근무 후 퇴직한 전 한일장신대 대학원 객원교수인 김천식 문학박사가 사진 제공 및 자료 설명을 도왔다. 총 27점의 사진이 전시된 126주년 기념 사진전은 1898년부터 시작된 예수병원 역사, 6번의 건물 변천사: 예수병원의 현재까지, 당시 예수병원 사람들: 그때, 우리 등 3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이번 사진전 주요 작품으로는 예수병원 마티 잉골드 초대 원장이 선교를 마치고 돌아가는 마지막 기념사진과 함께 민간 보험을 최초로 안착시킨 권익수 행정부장과 행정원들, 1960년대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시작한 소아과 의사 윌슨과 의료진, 1912년 최초의 서양식 예수병원 등 진귀한 사진을 만나볼 수 있다. 예수병원 홍보실 관계자는 “지난 11월 3일 예수병원 126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 지역민의 건강을 지켜온 예수병원 의료진의 역사와 헌신을 알리고자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천식 전 예수병원 홍보실장은 “이번 전시회를 개최한 병원 당국과 홍보실이 보여준 역사에 대한 관심에 역사연구자로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님의 품 안에서 아름답게 물들어갔던 시간이었습니다.

40년 근속자 & 2024 정년퇴직자 한마디

예수병원의 오랜 역사를 이끌었던 가장 큰 힘은 보이지 않는곳에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했던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병원의 역사를 빛낸 40년 근속자와 2024년 정년퇴직자 6인의 소회를 들어봤다.



재활의학과 홍용선
(정년퇴직)

126년 역사의 선교병원인 예수병원에서 37년을 근무하고 정년을 맞음에 은혜, 은혜, 은혜입니다. 국민역재활병원과 어린이 재활센터가 착공되고 아름답게 지어져서 예수병원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분께 감사합니다.



중환자실 이종옥
(40년 근속, 정년퇴직)

40년 광야 세월을 마치고 주변 동료들의 응원 덕분에 마침표를 무사히 찍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병원을 떠나게 되어 감사하고 늘 병원의 발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 백미정
(40년 근속, 정년퇴직)

예수병원에서 함께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단검사의학과에서의 시간은 무척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오래 기억될 것입니다.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병원 화이팅!!



콜센터 정정숙
(40년 근속, 정년퇴직)

병원 입사 면접시 좋아하는 성경구절을 말해보라고 했던 지난 1984년 2월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성경 80구절을 외우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받은 은혜를 일일이 말할수 없지만, 존경하는 의료진과 동료들 속에서 성장하고 이제는 응원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예수병원을 사랑합니다.



진단검사의학과 송경은
(40년 근속, 정년퇴직)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선교병원인 예수병원에서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열정을 통해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기쁨과 감사, 그리고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 더 큰 감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였습니다.



원무과 한영란
(40년 근속)

단풍이 예쁘게 물들고 있습니다. 40년 근속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선배님들의 가르침과 동료들의 따스함.. 같이 울고 웃는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병원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수병원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호남권 응급의료의 중심축으로 부상하다

응급의료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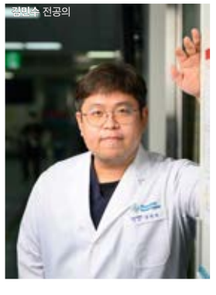
















전북 최초로 응급실의 문을 연 예수병원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보유한 병원이다.
최근 좀처럼 봉합되지 않는 의정갈등 상황에서 전북권역 내 환자뿐만 아니라
권역 외 응급환자까지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지역 응급의료센터 역할을 넘어
호남권 응급의료의 중추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예수병원 응급센터는 1971년 4월 개설된 전북 최초의 응급실이다.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응급한 환자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품고 헌신의 사명으로 시작한 응급센터. 1992년 119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후, 2000년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 응급의료센터로서 지역민들의 응급의료를 책임지고 있다.
2019년 충청 이남 최대규모의 53병상으로 리모델링해 최신 장비를 갖추고 365일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전국 열한번째, 호남권 최초로 문을 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운영을 시작하기도 했다. 각종 전문 임상과와 긴밀한 협진체계로 빠른 진단과 정확한 치료로 성인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소아응급환자까지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고의 시설과 실력을 함께 갖추다

2024년 10월 기준 예수병원 응급센터는 초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할 수 있는 처치실 2병상, 응급환자 진료구역 36병상, 일반격리 2병상, 음압격리 1병상 총 41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는 소아처치실 1병상,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구역 2병상, 소아응급환자 진료 구역 7병상, 소아일반격리 1병상, 소아음압격리 1병상 등 총 12병상을 확보해 환자들이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또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11명을 비롯해 응급센터 전담간호사 38명, 전담응급구조사 10명, 간호조무사 8명이 연간 3만여 명 이상의 응급환자를 성심을 다해 진료하고 있다.







의정갈등 속 응급의료체계 사수에 최선을

지난 2월 시작된 의정갈등으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센터에서 원활한 환자 수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중증 응급환자들의 수용 역시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예수병원 응급센터는 응급한 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진료하며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를 자처하고 있다. 특히 중증환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전북지역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의정갈등 발생 이후 9월까지 전북권역뿐만 아니라 권역 외 전원환자까지 수용하며 응급센터로서의 소임을 지켰다. 그 사례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무려 132건에 달했다. 단순히 사례의 수를 넘어 위험천만한 상황을 완벽하게 종료하며 응급센터다운 면모를 더욱 빛냈다. 그중 70여 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당한 산모가 헬기로 이송돼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한 일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개, 15개 병원에서 수용거부 된 뇌출혈 환자와 응급투석환자 등도 수용해 최종치료를 제공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는 장중첩증 치료를 위해 포항, 대구, 해남, 청주, 세종 등에서도 환자들이 내원하고 있다. 이처럼 예수병원 응급센터는 의정갈등은 응급의료의 붕괴라는 수식 앞에 전북특별자치도 응급의료체계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INTERVIEW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조치가 중요합니다

응급의료센터 **김호권 센터장**



응급의료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환자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응급센터 모든 의료진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즉각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망설이지 않고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평가하고 치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트리아제 시스템 정립은 가장 심각한 상태의 환자가 빠르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 지키고 있는 수칙이나 신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응급센터 모든 직원들은 모든 환자에게 동등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계획 수립과 의료진 간 원활한 소통은 환자의 안전과 치료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예수병원 응급센터는 팀워크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 공유, 상황 보고 및 협력을 통해 최적의 치료 결과를 도모합니다. 응급센터 내 모든 과정에서 환자와 직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응급의료센터를 찾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응급 상황 시에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각하거나 갑자기 발생한 경우, 지체하지 말고 즉시 119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의료진에게 증상, 병력, 알레르기 반응, 복용 중인 약물 등을 가능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진료 이후 의료진이 제공하는 지침이나 처방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년 365일 언제라도 최선의 응급간호를 펼치는

응급센터 간호사실

예수병원 응급센터에는 연간 3만명 이상의 환자가 내원해 응급 서비스를 받는다. 지난 2019년 리모델링을 통해 전국 3위 규모로 확장 개소해 더 많은 환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최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신속한 치료로 내원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응급센터. 그곳에서 언제나 최선의 응급간호를 펼치는 간호사실을 찾았다.



지역사회 지키는 건강 안전망

응급센터는 '신속하게, 정확하게, 안전하게'를 목표로 최신 장비와 숙련된 의료 기술을 통해 24시간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 총 53병상을 운영하며 주요 환자군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심혈관질환을 비롯해 뇌혈관질환, 교통사고, 낙상, 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중증외상환자 같은 시간을 다투는 중증질환자들부터 소아 응급환자, 내·외과 질환 환자들까지 다양하다. 응급의료 시스템으로 신속한 진단을 내리고 치료함으로써 건강회복을 돕는다. 지역 내 타 병원들과의 유기적인 연계로 전원해온 집중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수술, 시술, 급성기 치료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전북 최초 고압 산소 치료기 두 대를 도입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환자 분류소를 비롯해 처치·심폐소생실, 중증응급환자구역, 응급환자구역, 경증환자구역, 일반격리구역, 음압격리구역 등 구역화해 효율적으로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호남 최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개소해 만 15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맞춤형 진료와 전문 간호를 제공하고 있다.

언제나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다양한 환자가 내원하는 만큼 잊지 못할 기억들도 많다. 전국 병원에서 수용 불가를 표한 전자간증 기왕력(과거 경험한 질병) 산모가 헬기로 이송돼 응급 처치 후 응급분만해 산모와 아이 두 생명을 구했던 뜻깊은 일도 기억에 남는다. 보호자 없는 개인위생 불량 환자를 응급의학과 과장님과 간호사들이 격리실에서 깨끗하게 씻기며 전인 간호를 실천하는 모습은 따듯한 응급실의 모습 그 자체였다. 소아전문응급센터가 만들어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환자가 내원하고 있다. 늦은 밤 장중첩증으로 119구급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 응급실에 내원한 환아도 그중 하나다. 즉시 초음파를 통해 장중첩증을 진단했고, 시간이 지체될 경우 장 괴사나 더 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 처치가 필요했다. 비수술적 방법인 공기 정복술을 시행했고, 신속하게 회복되어 수술 없이 퇴원할 수 있었다.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보람을 느끼며

응급실은 일반 진료와 달리 도착한 순서가 아닌 긴급성에 따라 진료가 이뤄진다. 응급중증도(KTAS)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고 심각한 상태 환자를 우선 치료하는데, 응급실 간호사는 환자 상태를 신속히 확인해 가장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우선순위를 정한다. 지속적인 재평가로 긴급 상황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혼잡한 환경에서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환자와 보호자를 안정시키는 정서적 지지도 빼놓을 수 없다. 응급실에 내원할 때는 환자 상태의 경중을 떠나 보호자가 함께 오는 게 좋다. 응급 상황에서 보호자가 꼭 필요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고 예방과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생과 사가 오가는 응급실에서는 언제나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응급센터 의료진들은 내 가족 돌보듯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자가 신뢰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바쁘고 힘들지만, 환자를 살리는 일에 동참한다는 사명감으로 보람을 느끼며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한 126년간의 섬김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그 섬김을 이어갑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단 **이대영 단장**



지역책임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필수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 기획·연구·조정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인력 파견·교육 등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다양한 임무도 수행한다.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126년이라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예수병원은 누구도 공공보건의료에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부터 민간기관으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왔다.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내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기 위해 애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 해외 취약국가들의 보건의료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경험과 노력을 토대로 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필수사업 분야인 중증 응급 질환의 골든 타임 확보를 위한 이송과 전원 협력 시스템 구축은 물론, 퇴원 환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분들이 지역사회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감염과 환자 안전관리, 재활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도 소홀히 하지 않고, 산모와 신생아, 어린이를 아우르는 협력 사업으로 양질의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환자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더욱이 2026년 공공 어린이 재활의료센터와 권역재활병원이 통합된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이 건립되면 더욱 효과적인 생애주기별 재활의료 서비스를 펼치게 될 것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궁극적으로 예수병원 공공보건의료 사업단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보건의료기관이 바라는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오랜 기간 지역사회에서 공공보건의료 활동을 펼쳐온 예수병원이 올해 전주권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새롭게 선정되어 지역사회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과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선정 의미를 짚어보고 지역 환자들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주요 사업을 살펴본다.

환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의료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지역환자안전센터 **박종필 센터장**

예수병원이 환자 보호와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제2기 지역환자안전센터에 선정됐다. 앞으로 환자안전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호남지역 환자 안전을 책임지는 허브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주요 사업과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들어본다.



지역환자안전센터는 환자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하며 의료 환경 내에서 안전 문화를 발전시키는 여러 활동을 펼치는 기관이다. 각 지역 의료기관들과 협력해 환자 안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 안전 교육을 비롯해 기관별 맞춤형 컨설팅, 안전 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 보고 시스템 마련, 협력체계 구축 등이 그것이다.

예수병원은 전용 홈페이지로 협력 기관들과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실현함으로써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맞춤형과 필수 교육 두 가지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 안전 라운딩, 환자 안전 컨설팅을 시행하며 기관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안전문화 확립을 위해 '환자 안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환자안전문화 인식도 설문 조사를 통해 교육 효과를 높이고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협력 기관 대상 안전사고 보고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리는 필수 교육을 진행하고,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사고보고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자 안전은 의료서비스의 핵심이다. 이번 선정은 예수병원이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라 믿는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의료기관으로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환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환자 안전을 지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도 잊지 않을 방침이다.

아프리카 선교주간

홍건 선교사 · 최재걸 선교사 의료선교 그림전시회

일 시 2024. 9. 28. (토) ~ 10. 4. (토)
장 소 전주기독교근대역사기념관 3층 기획전시실

아프리카 의료선교를 위한 음악회

일 시 2024. 10. 1. (화)
장 소 예수병원 본관 4층 예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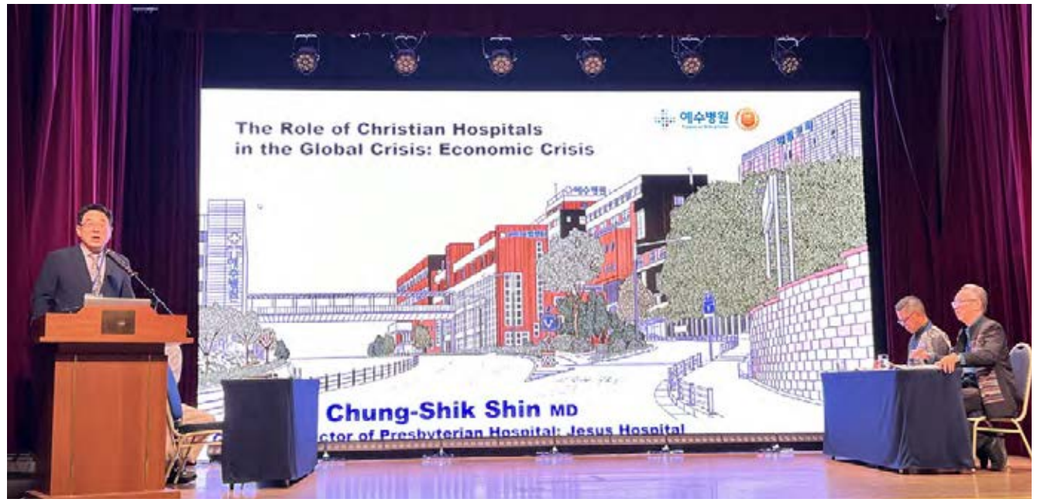
이번 전시회는 예수병원과 한국기독의사회가 주최하고 아프리카 미래재단, 로제타홀 기념사업회가 후원하는 그림 전시회로 '아프지마 아프리카'를 주제로 의료선교 유화작품이 전시됐다. 아름다운 아프리카의 풍경과 정교회의 역사적인 예배의식을 우선시한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며, 지난번 '아프지마 에티오피아'의 홍건 선교사의 작품에 이어 최재걸 선교사의 작품도 더해져 다채로운 아프리카의 모습을 선보였다.





2024 성경암송대회

지난 10월, 2024 성경암송대회가 열렸다. 예수병원 전 직종 24명의 직원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겨 전도와 기도에 힘쓰고자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모두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훌륭하게 말씀을 암송해내어 찬사를 받았다. 최종 시상은 우수상 5명, 입상 11명, 그리고 전체 참가상으로 마무리되었다.



제27차 아시아기독병원대회(ACHA)

일 시 2024. 11. 7. (목) ~ 9. (토)
장 소 일본 오키나와

지난 11월 7일, 예수병원은 일본 오키나와에서 개최하는 제27차 아시아 기독병원대회에 참석했다. 일본 기독병원협회가 주관한 이번 연례대회는 '국가위기상황에서 기독교병원으로서 역할'을 주제로 열렸다. 코로나 이후 화두로 전환된 국가위기, 자연재앙, 금융위기 등을 토의하며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지난 대회 협회장을 맡았던 신충식 예수병원 병원장은 3개 주요 세션 중 하나를 맡아 '기독교 병원의 역할: 경제 위기'를 주제로 강연했다. 신충식 병원장은 "과거 다양한 분야에서 인류의 진보를 위해 헌신한 기독병원들의 발자취를 이어받아 기독교인으로 지녀야 할 신앙적 가치를 키우자"며 발제를 마쳤다.





찾아가는 의료선교봉사

일 시 2024. 11. 19. (화)
장 소 임실군 조월마을과 월성마을

예수병원 국내 선교부와 국제의료협력단(대표 김병선) 국내팀은 19일 임실 지역 조월마을과 월성마을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했다. 이번 의료선교봉사는 임실 삼덕교회(담임목사 김윤배)의 협력으로 진행되었으며, 예수병원의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유방갑상선혈관외과, 산부인과 전문 의료진이 참여해 정보교류 및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해 봉사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특히 X-ray, 초음파(갑상선, 유방), 물리치료, 산부인과 검사 등을 통해 여성 질환과 통증 완화에 중점을 두었다.







미션톡(Mission Talk)

일 시 2024. 11. 16. (토)
장 소 예수병원 4층 예배실 (온라인 동시진행)

모두가 함께하는 선교 이야기, 2024년 Mission Talk! 미션톡은 매년 11월 선교의 달 행사로 시작되어 국내기독병원들이 함께 모여 선교사나 목회자 뿐 아니라 평범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선교의 자리이다. 의료 현장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선교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가 오고 간다. 지금은 참여하는 병원이 늘어나 8개의 병원(고신대학교기독병원,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광주기독병원, 샘병원, 원주연세대학교의료원,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 연세의료원, 예수병원)이 함께하고 있다. 매년 11월에 한번씩 모임을 갖고 있는데, 올해는 예수병원이 진행자가 되어 11월 16일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제이크루의 찬양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서로가 생각하는 선교적 삶에 대해 나누는 풍성한 시간이었다.





MINI INTERVIEW

예수병원 내시경실에서 근무중인 간호사, 최하은입니다. 지난 2월, 파키스탄 단기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지에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극복하며 살라다 고군분투하시는 선교사님의 열정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민형래 선교사님이 세우신 차초로 병원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굶주리고 병든 자를 위해 생수를 공급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팀원들은 매달 파키스탄을 위한 믿음을 가지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주시는 분들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 파키스탄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 하반기
예수병원 선교훈련

「선교의 올바른 이해와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



일 시 2024. 10. 1. (화) ~ 11. 19. (화) - 8주간
매주 화요일 18:00~ 19:40

장 소 재활센터 3층 샤론홀



선교훈련 참가자 소감

조신영 · 예수대학교 간호학과

일상에서의 선교적 삶을 고민한 8주의 훈련은 제게 선물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흘러 지금 우리에게까지 닿아있음을 고백하며, 앞으로 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일상이 선교가 되는 어떠한 이야기를 써 나아갈 수 있을지 기대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유진 · 내시경실 간호사

선교훈련을 통해 제가 잊고 있던 은혜를 다시 찾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채워지면서 기쁨이 오고, 기쁨이 마음에 차곡 쌓이니 더욱 마음이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풍료로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지영 · 전산정보과

영성 깊은 훌륭한 강사님들의 교육과 조원들과 나눔 교제를 통해 일상 속에서의 선교적 삶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빚진 자로써 앞으로 그 은혜를 여러 모양으로 세상에 전하게 되길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2024년 하반기
예수병원 선교훈련

3년간의 훈련원 사역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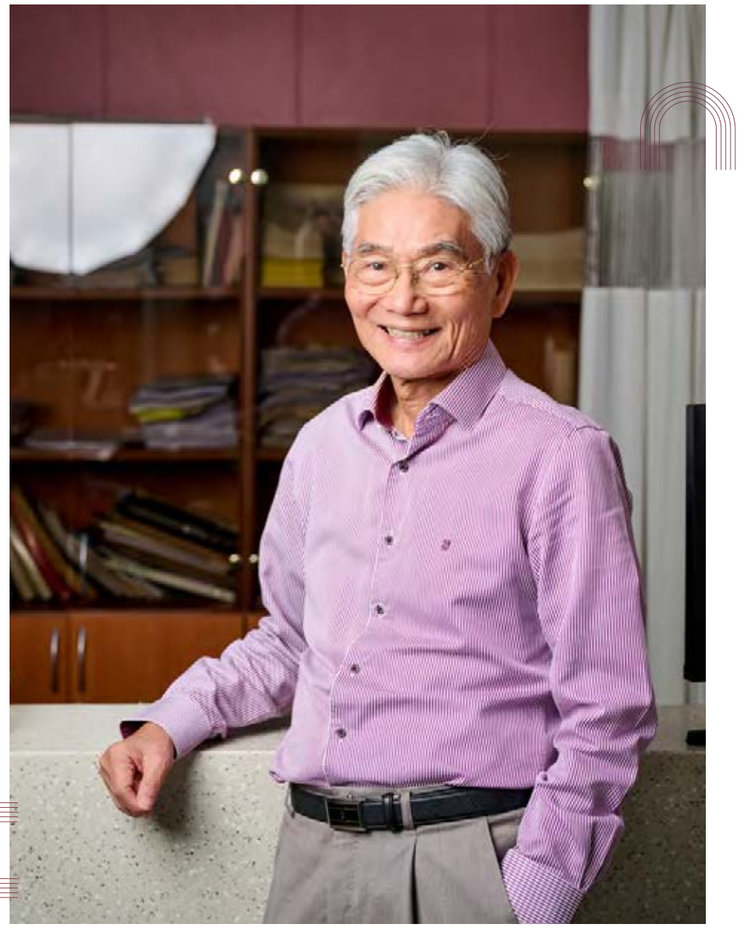
PMCI 훈련원장 **양유성**



지난 3년간 이 직함이 제겐 참 무겁게 느껴졌었습니다.
훈련원장으로써의 업무들 때문에 부담이 된 것은 아니고,
제게 맡겨진 책임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훈련원을 맡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자신도 없고 부담이 많이 되어 거절하고 싶었지만
고민해 보겠다고 한 이유는 제가 만나는 병원의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뿐더러, 예수병원을 그만둬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면서 힘겹게 버티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안타까워 훈련원장을 수락하고서 지난 3년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제게 맡겨진 소임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제가 지향했던 훈련원은 보내주신 훈련원생들을 모든 좋은
것(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고, 일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2회씩, 8주
코스의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돌아보니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났고, 그분들과 함께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결코 쉽지 않으셨겠지만 자원함으로
훈련원을 섬겨주신 섬김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이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섬김이였던 분들을 볼 때마다
큰 격려와 힘을 얻고, 기쁨을 얻습니다.
그 뿐 아니라 훈련원이 거쳐간 훈련원생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난
3년동안 훈련원장으로 섬겼음이 참 감사합니다.
이제 임기를 마치고 훈련원장이라는 직함을 내려놓지만, 또
다른 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병원에 임하고,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병원이 되기보다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며, 지금
당장 여기서 선교를 감당하는 병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저의 자리에서 다른 형태로 지체들을 섬기려
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신과의사로서 정열을 쏟아부으며 진료하다보니 신앙심도 깊어진 것 같아요

김임신경정신과의원 **김임 원장**



씨앗을 심고 정성껏 기르면 알찬 결실이 맺히듯 우리 삶과 기도도 마찬가지다. 마음을 다하면 씨앗이 싹을 틔우고 선한 열매가 돌아온다. 1980년 신경정신과 개설부터 20년간 성심으로 과의 토대를 닦고 인재를 길러낸 김임 원장의 삶도 그러하다. 섬김과 나눔으로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진료와 전공의들 교육부터 타과 자문까지. 예수병원에서 그의 청춘을 주님 향한 정열적인 삶과 봉사로 채웠다.

운명처럼 맺어진 예수병원과의 인연

그와 예수병원의 만남은 말 그대로 주님의 은총이었다.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 성사되면서 운명처럼 예수병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전주로 아내와 함께, 그것도 같은 시기에 내려오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때는 1980년. 김 원장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응암동 시립정신병원 정신과 주임 과장으로 근무할 때였다.

"당시 예수간호대에서 지역사회보건학과를 신설하면서 엄제정 학장님이 아내를 영입하고자 했습니다. 아내와 떨어지기 힘든 상황을 설대위 원장님이 알게 되었고, 정신과를 개설한다며 섭외가 들어왔어요. 그렇게 부부가 함께 전주로 왔지요."

과 개설 후 병원에서 연구하고 진료하고 전공의 교육까지 정열적으로 일했다. 신설된 과의 토대를 닦고 성심으로 키웠다. 그 시간이 무려 20년. 그동안 그가 뿌린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며 다른 과 자문도 참 많았다. 초창기 정형외과 입원 치료를 받던 20대 여성이 요통으로 엉덩이 근육주사를 맞았는데, 그날 밤 일어나지 못하게 됐다. 이후 병실과 병동에서 난리 치며 의사들을 수일간 괴롭혔다. 환자와 보호자가 일주일간 정신과 자문을 통해 정신치료와 약물치료로 호전됐고, 소란피워 미안했다며 크게 사과하고 요통도 없이 건강히 걸어서 퇴원했다. 당시 이 일은 병원 안과 밖에서 크게 소문이 나기도 했다.

그에게 봉사는 일상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4년 대학 예과 2학년 시절 기생충검사로 무의촌 의료봉사를 했고, 본과 2년부터 시작한 진료 봉사를 현재까지 무려 60년간 이어오고 있다. 국내 농어촌과 오지에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까지 넓히며 의료봉사와 정신건강 강좌를 펼쳤다. 생명의 전화를 비롯해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호스피스, 주부대학, 경로대학 등 사회 참여로 다양한 사람들의 정신건강 치유를 돕기도 했다. 기부도 빼놓을 수 없다. 한일장신대에 2008년부터 10년간 장학금 3억 원을, 지난 2022년 결혼 50주년을 맞아 2억 원을 추가해 총 5억 원을 기부했다.

몸과 마음, 영혼까지 치유하기를 소망하다

마음 아픈 이들은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해소된다. 감정을 쏟아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한다. 김임 원장은 이를 넘어 전도도 하면서 원인을 찾아 빠르게 치료하고 있다. 청소년부터 중년,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 환자들의 치유를 돕는다.

그는 환자를 대할 때 '여기에 왜 왔을까?' '나에게 뭘 말하려 애쓰는가?'를 생각하며 말과 감정을 들으려 한다. 이를 통해 아픈 그들에게 공감하면서 치료하려 노력하고 있다. 약도 알고리즘보다 환자 개개인에 맞춰 처방한다. 마치 양복점에서 옷을 맞추듯 사람의 성향, 환경, 아픔의 정도 등 개인에 따라 맞춤형 처방을 내린다. 이러한 치료가 입소문을 타고 전북을 넘어 전남, 경기도, 충청도, 서울, 경상도 등에서도 찾아오는 이들이 많다.

의원을 1999년 개원했으니 예수병원을 떠난 지 2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다. 126년 동안 도민 공공의료를 위해 수고해주고 있는 예수병원 식구들, 그리고 최첨단 의료서비스를 펼치고 영역을 확대해 좋은 의료진을 양성하고 선교를 원대하게 펼치는 예수병원에 경의와 사랑을 표했다.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두 하나님의 권능이요, 은총임을 강조하는 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돈다.

"예수병원이 잘하고 있어요. 의료대란으로 힘든데, 신앙심을 바탕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지역사회와 환자들에게 봉사하고 섬기고 진료하고 교육하는 현재 모습을 유지하기를 기도합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병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식구들, 주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할레루야 아멘."

김임 원장

프로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신촌세브란스병원 인턴, 신경정신과 전공의 수료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박사
한일장신대학 명예 사회학 박사
1974~1980 서울시립정신병원 정신과 주임과장
1980~1999 예수병원 신경정신과 주임과장
1999.3~현재 김임신경정신과의원 (Psychotherapist)
신경과, 정신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노인정신과 인준의
(현) 연세대, 원광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
(전) 전북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
2023~2024 교육부 심리지원단 전문의 위촉
(현) 전북도의사회 고문, (현) 호남오페라단 고문
(현) 전북생명의전화 명예이사장 (현)전주완산교회 원로장로

• 수상 경력

한국 뇌전증학회장 공로패
(1972~2018 장미회, 간질환자 40년 이상 무료 진료)
2008 생명사랑 대상 20년 봉사, 한국생명의전화
2015 정신보건의 날 보건복지부장관상
2018 보령의료봉사상 대상
2019 전국 숨은 봉사자찾기 국무총리상
2022 윤도준 의학상

내 안의 나를 만나는 순례자의 섬



신안군 기점·소악도 섬티아고 순례길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든다. 망망대해 섬처럼 오롯이 나 혼자만 있고 싶다고. 그럴 땐 고민하지 말고 떠나 보자. 그저 걷고 기도하며 내 안의 나를 만날 수 있는 순례자의 섬으로. 섬과 섬 사이를 오가며 온전한 자유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안이 될 테니까.



열두 가지 테마의 열두 개 예배당

스페인에 산티아고 순례길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섬티아고 순례길이 있다. 전남 신안군 대기점도와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딴섬 등 다섯 개 섬을 잇는 '12사도 순례길'이다. '대한민국에서 섬이 가장 많은 '섬들의 천국' 신안군이 2017년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선정되며 조성한 길로 총 12㎞에 이른다. '섬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신안 출신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라는 점에서 착안해 조성됐다.

썰물이 되면 모습을 드러내는 노두길로 이어진 섬들에 1~2㎞ 간격으로 아담한 예배당이 자리한다. 국내외 건축가와 미술작가가 참여한 3평 남짓한 예배당은 혼자서 조용히 묵상하기 좋다.

걷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건강의 집을 시작으로 지혜의 집까지 각각 고유의 주제를 부여해 둘러보는 즐거움을 더한다. 순례길에 가기 위해서는 전남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에서 소악, 매화, 소기점, 대기점으로 운항하는 배를 타야 한다. 1번부터 순서대로 보려면 대기점도, 12번부터 거꾸로 보려면 소기점도 선착장에서 내리도록.

대기점도 선착장에 내리니 청량한 파란색 지붕의 베드로의 집이 반긴다. 마음에도 맑고 깨끗한 한 줄기 바람이 스친다. 순례길 시작을 알리는 작은 종을 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를 드리며 여행의 시작에 나선다. 소기점도, 소악도, 딴섬에 자리한 예배당을 차례로 찾아 감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바다 저편으로 붉은 노을이 진다. 모세의 기적처럼 모래사장에 물이 차오르면 건널 수 없는 딴섬에 있는 12번 가롯 유다의 집 옆 종탑에서 종을 치며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종소리를 들으니 복잡했던 머릿속에 평온함이 깃든다. 천천히 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기도하며 내 안의 나를 만나는 곳, 신안군 섬티아고 순례길에서라면 완벽한 하루가 그렇게 저문다.

Tip.

물때와 배 시간 확인하기

섬티아고 순례길을 걷기 위해서는 노두길이 열리는 물때와 배 시간 확인은 필수다. 노두길이 잠기면 섬을 오갈 수 없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 압해도 송공항에서 하루 네 차례 배가 뜨며, 대기점도까지 70분가량 걸린다.

선교는 곧 '관계'다

글 **재활의학과 이광재 과장**

기독교 선교란 무엇인가? 宣(베풀 선, 널리 펼 선)과 敎(가르칠 교)가 기독교 복음을 널리 펴는 것이라는 사전적 의미로서 영어로는 Missionary Work라 하여 하나의 일 또는 사역으로 본다.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기독교를 널리 펴는 사역'을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초점을 둘 것인가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한다.



아이들을 봐 주시기 위해 집에 오신 아버지… 약 10년 전 쯤 이명으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45병동 김은숙 수간호사 선생님께 아버지께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다고 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했더니 아버지와 약속을 하셨다고 했다.

수간호사: "제가 열심히 기도할테니, 이번에 완치되면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 믿으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명이 불치병이라는데 낫겠어요? 아무튼 완치되면 그리 하리다."

그런데 정말 완치가 되어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이후로 이 약속은 무시하며 살아오셨다. 이단에 빠져 삶을 마감한 처제들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심한 저항이 아직 남아 있음을 알지만 그래도 약속을 잘 지키시는 아버지께 여러 번 권면도 하고 주일이 포함된 명절에는 모시고 근처 교회도 나가 보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당신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계셨다. 그리고 이번에 집으로 오신 아버지께 저녁을 먹고 마주 앉아서 다짜고짜 오늘 제가 아버지 영접해 드리려 한다고 말씀 드리고 아버지는 그냥 듣고 '그래', '아멘'만 하세요 하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아버지도 죄인이고, 죄의 삯은 사망이고,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이어 가면서 영생을 얻는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영접을 하시라고 저를 따라서 '아멘' 하라고 말씀드리며 결국 '아멘'을 받아 내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기도를 하고 아버지께 나아간 후 얻어낸 놀라운 성과였다. 이후 아버지께는 이제부터 자식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권위가 주어졌으며 이전에 손자, 손녀를 위한 축복기도문과 대적기도문 3장 짜리를 인쇄해서 드렸는데 그걸 읽으면서 사랑하는 손자들을 위해 매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렸다. 그것이 지난 2024년 6월의 이야기인데 지난 주(2024년 7월 21일) 드디어 스스로 집 근처 교회를 다녀오셨다는 메시지를 어머니로부터 받았다. 가서 졸다가 왔지만 헌금도 하시고 예배 다 끝나고 오셨다고 하였다. 역시 씨를 뿌리면 신실하게 거두시는 하나님이시다.

80년을 넘게 살아오신 아버지께서 기독교와 유사한 종교에 빠졌던 친족의 배신과 죽음을 보며 거리를 두었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연세가 들면서 몸과 맘이 약해지고 의지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도 있겠고,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된 누나의 기도로부터, 수간호사님의 기도, 나와 우리 가족의 기도 등이 떠오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나와 아버지의 관계가 좋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진 선교의 정의는 '복음(예수)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라고 생각한다. 즉 '선교는 관계'다.

교회에서 선교학교를 통해 알게 된 책 '파인애플 스토리'에는 뉴기니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오토 코닝(Otto Koning) 선교사가 나온다. 병원을 열어 치료해 주고, 상점에서 성냥, 소금, 낚시 바늘 등을 팔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는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 묘목을 심고 수확하기까지 3년을 기다렸지만 원주민들이 훔쳐가면서 그들과 사이가 틀어지게 되고 그 밭을 원주민들에게 주고 다시 다른 자기의 밭을 일구어 3년을 기다렸지만 또 다 훔쳐가고, 진료도 끊고, 상점 문도 닫고 맹독견을 들여오고… 그 사이 원주민과의 사이는 악화되고 결국 자신의 밭에서 파인애플을 수확해서 먹게 되었지만 전도할 원주민들이 없어지게 된다. 안식년 때 귀국해서 참석한 세미나에서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고, 소유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드리는 원리를 배우게 되며 자신의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다. 뉴기니로 돌아온 그는 파인애플밭을 하나님께 드렸다. 원주민들은 다시 와서 파인애플을 가져가기 시작했는데 그걸 보며 '보세요, 하나님도 이 사람들을 막지는 못하시는군요.' 생각하였다. 그 후 어느 날인가 그들이 다가와서 살며시 말을 건넨다. "당신 드디어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그렇죠?" "왜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도 화를 안 내니까요." 이 말이 그에게 계시가 되었고 이제야 오토 코닝 선교사는 그들에게 가르쳐온 대로 살기 시작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후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에 원주민들 사이에 소문이 났고 그들은 다시 그 밭을 하나님께로부터 가져오라고 하며 어쩐지 사냥이 안 되더라, 애들이 아프더라, 아이를 못 낳게 되더라 등 하나님 것을 훔치니 이렇게 되었다며 파인애플 도둑들이 사라지고 모두가 잘 익은 파인애플을 수확하며 모두 함께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선교사가 변하자 많은 원주민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원리를 실천함으로 인해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고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다. 해외로 선교를 가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주고 베풀고 섬기고자 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지인들과의 관계 맺음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초단기로 다녀 온 직원들의 고백 속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 주고 왔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왔다.', '다녀 온 우리 팀원 사이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흔하나 그곳 사람들과 어떤 일이나 만남을 통해 어떤 관계를 맺고 왔다는 이야기는 잘 듣지 못한다. 기껏해야 1주일인데 그 사이 얼마나 많은 관계를 기대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하루의 인연으로도 평생의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보면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녀온 미션트립의 경우 가서 현지 학생들과 함께 놀기만 한 것 같은데 마지막 날 보면 서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 눈물을 흘리고, 또 돌아온 우리 청소년들이 그 나라, 그 친구들을 품고 기도하고 후원을 이어가고 다시 방문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된다. 예수님도 우리와 밥 먹자고 문을 두드리지 않는가? 같이 어울려 밥 먹는 관계를 맺은 후 예수님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고 이후 제자들도 순교를 감당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였다. 남남에서 같이 밥 먹는 사이로, 같이 밥 먹는 사이에서 서로를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관계로 이어지며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참 '선교'가 아닐까?

Presbyterian Medical Center

환자가 뽑은 명의

믿을 수 있는 예수병원 의료진, 환자를 유심히 살펴서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주고 깊은 공감으로 소통한다.
예수병원 환우들이 추천한 이 달의 명의를 소개한다.

유방·갑상선외과 최은혜 과장



과장님의 프로페셔널함과
차분함이 주는 엄청난
신뢰감으로 떨지 않고 수술
잘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중에도 끊임없이 제
상태를 체크해주시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수술 후 하루 지난 지금도 통증이 거의 없고
멍도 거의 안 들었어요. 맘모톰 수술 필요한 제 주변
지인들에게 무조건 예수병원 최은혜 과장님께 달려가라고
할 거에요.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진 님

마취통증의학과 김유일 과장



아픈 곳을 만지시고
진료해 주셨는데 귀가해서도
어깨가 편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김유일 선생님은
의술을 제대로 익히시고
많은 경험을 쌓아 베테랑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환자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꼼꼼하게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훌륭한 분이라서 칭찬글을 남깁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환 님

이비인후과 천경두 과장



연세가 많으신 저의
어머님을 안정시키고
환자의 두려움을 해소
시켜줄 뿐만 아니라 각종
설명자료와 부연 설명으로
환자를 이해시키고 안심시켜
주시는 등 최고의 진단과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친절함을 보았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시어 계속 좋은 의사
선생님으로 남아서 환자들에게 기쁨을 선사해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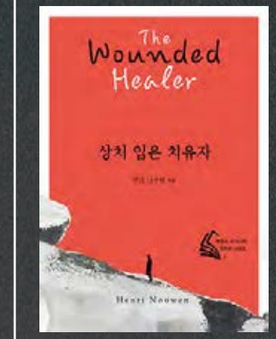
재활의학과 이정후 과장



어렵고 힘든 재활을 편안하고
자세하게 설명주시고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많은
환자들에게 신뢰받는 선생님 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더불어 예수병원 재활센터가 더욱 더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정○경 님

상처 입은 치유자에게서 배운 삶의 이야기

34병동 책임 간호사 **빈영주**



저는 23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간호사로서 매일 마주하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작은 희망들을 헨리 나우웬의 『상처 입은 치유자』를 읽으며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닮은 치유자의 역할

환자들의 고통과 불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아픔을 나누며 제가 얼마나 무력한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희망과 기적의 순간을 함께 경험하기도 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 암 환자와의 대화였습니다. 그 환자가 저에게 털어놓았던 감정과 두려움을 듣고 공감하며, 단순한 돌봄을 넘어 그와 함께 상처를 나누는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헨리 나우웬이 말했듯, 깊숙한 곳에 숨겨 두었던 나의 상처도 그 환자와 함께 치유되었고, 이 책의 메시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나우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우리가 타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다리가 된다." 우리의 상처는 서로를 치유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상처를 짊어지고, 그 고통을 통해 인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의 궁극적인 모델입니다. 나우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자신의 상처를 타인과 나눔으로써 더 큰 치유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상처 입은 치유자'는 제가 사랑한 주인공입니다. 바로 지금 이글을 읽는 그대 일 수도 있겠네요. 이 책은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안에 담긴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지침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의 상처도 결국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이 책을 통해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상처 속에서 빛을 발견하고 치유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We are PM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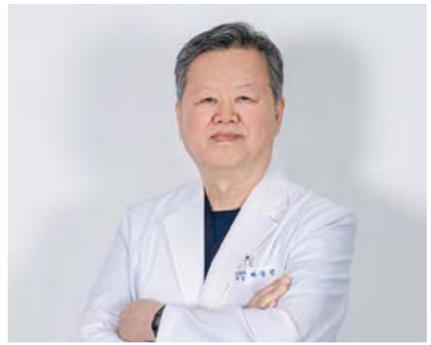
예수병원 협력병원 소개

365의원 (사)대한결핵협회전라북도지부 복십자의원 (사)인구보건복지협회전북특별자치도지회가족보건의원 (사)한국건강관리협회건강증진의원 JB혈관외과
PSI한솔비뇨기과의원 ㄱ 가족사랑요양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강남호랑이마취통증의학과의원 강만춘내과 강북삼성병원 강성호마취통증의학과의원
강신녕가정의학과의원 강원택내과의원 강정성내과의원 강초희유외과의원 강충희제통의원 개정정신건강의학과의원 건강나라요양병원 건강제일의원
건국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고려연합의원 고산성모의원 고창노인요양병원 고창종합병원 골든카운티요양병원
곽병찬가정의학과의원 구세의원 국민내과의원 군산정읍성신병원 군산베스트한방병원 군산봄요양병원 군산속편한내과의원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군산의료원 군산중앙의원 군산학문외과의원 군산현대이비인후과의원 굿모닝비뇨기과의원 굿모닝의원 권철내과의원 그레이스산부인과 기운찬마취통증의학과
길연합마취통증의학과의원 김귀완내과의원 김내과의원 김문중내과의원 김문철내과의원 김봉준정신건강의학과의원 김비뇨기과의원 김성국내과의원
김양박이비인후과의원 김양호내과의원 김완길이비인후과의원 김용성내과의원 김유창재활의학과의원 김임신경정신과의원 김제오케이의원 김제중앙병원
김소희유외과 김종구내과의원 김종민가정의학과의원 김종범소아청소년과의원 김태수마취통증의학과의원 김현중내과의원 김형식내과의원 김혜영소아청소년과
김홍기가정의학과의원 김희정내과의원 ㄴ 나눔요양병원 나방주내과의원 나영균내과 나은요양병원 남부연합의원 남원의료원 남원정형외과의원
노금석외과의원 누가외과연합의원 누가정형외과의원 누가한방병원 늘편한내과의원 늘푸른소아청소년과의원 ㄷ 다나이비인후과의원 다나소아청소년과의원
다사랑병원 다솔아동병원 대성의원 대자인병원 더건강한내과의원 더나은마디의원 더세움병원 덕진내과의원 덕진재활의학과의원 도신경외과의원
도은정형외과의원 동군산병원 동산정형외과의원 동아의원 두드림내과의원 드림솔병원 드림연합의원 ㄹ 라온소아청소년과의원 리앤박소아청소년과의원
ㅁ 마령가정의학과의원 마음의평화정신건강의학과의원 마음편한요양병원 만성연합내과산부인과의원 만인요양병원 맑은샘내과의원 맑은안과의원
맑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맘외과의원 맘정신건강의학과의원 모아산부인과의원 무주신경외과의원 문실버요양병원 문이비인후과의원 미듬내과의원
미래내과의원 미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미래와여성산부인과의원 미즈아이산부인과의원 미즈웰김영희산부인과의원 믿음병원
바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바른비뇨의학과의원 바른영상의학과의원 박상배내과의원 박승민내과의원 박영삼세이유외과 박외과의원 박이비인후과의원
박일주내과의원 박정형외과의원 박종관비뇨의학과 박종혁믿음병원 박천수정형외과의원 밝은안과의원 복음연합내과의원 본병원 본안과의원
봄빛소아청소년과의원 봉동현대정형외과의원 부안성모병원 부천세종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ㅅ 사랑가정의학과의원 사랑요양병원 산호가정의학과의원
삼광의원 삼남재활의학과병원 삼봉척편한마취통증의학과의원 삼성가정의학과의원 삼성드림소아청소년과의원 삼성서울병원 새란산부인과의원 새봄가정의학과
새소망정형외과의원 새전주요양병원 서경락가정의학과의원 서기항치과의원 서복주내과의원 서비뇨기과의원 서신전주내과의원 서울가정의학과의원
서울내과의원 서울대병원 서울마취통증의학과의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영상의학과의원 서울정형외과의원 서지석이비인후과의원 세나여성의원
석정웰파크병원 석정웰파크요양병원 성모안과의원 성모요양병원 성모의원 성심의원 세나유의원 세미한병원 세브란스병원 소룡의원 소망가정의학과의원
소양제일의원 속편한내과영상의학과의원 속편한내과의원 속편한내과의원(함양) 손영돈내과의원 송대원신경과의원 송민주내과의원 송천수내과의원
송헌섭소아청소년과의원 송호신내과의원 송희원산부인과의원 수병원 수요양병원 수피부과의원 시민의원 신경덕내과의원 신대균내과의원 신세계병원
신세계정형외과병원 신우종내과의원 신일균신경외과의원 신통내과의원 실로암병원 실로암안과의원 쌍치의원 ㅇ 아남내과의원 아름다운피부과의원
아중요양병원 양빛나유외과의원 양윤정신경과의원 어의당한방병원 에덴산부인과의원 에코내과의원 에코산부인과 에코소아청소년과의원
엔젤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엠마오사랑병원 연세가정의학과내과의원 연세김창훈내과의원 연세베스트신경외과의원 연세수가정의학과의원
연세안과의원 연세의원 연수요양병원 연정형외과의원 연희내과의원 열린가정의학과의원 예송요양병원 예수가정의학과의원 예일소아청소년과의원
오강렬내과의원 오비뇨기과의원 오성수외과의원 오종용내과의원 온고을재활의학과병원 온누리연합내과의원 완주군아름다운노인전문병원 완주요양병원
왕원기이비인후과의원 용진가정의학과의원 우리가정의학과 우리가정의학과(오수) 우리노인전문병원 우리들사랑요양병원 우리들소아청소년과의원
우리들항외과 우리마디의원 우리요양병원 우리의원 우리항맥외과의원 우석대부속전주한방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한방병원 원자력병원
원평연합의원 위사랑연합내과의원 위이비인후과의원 위편안내과의원 유관희내과의원 유라인외과 유로병원 유비내과의원 유사랑외과의원 유앤장외과의원
윤성균내과의원 으뜸병원 은소아청소년과의원 은파요양병원 은헌정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은혜산부인과 이남심내과정형외과의원 이노플러스성형외과의원
이대목동병원 이대서울병원 이덕수내과의원 이동엽진심내과 이명철정형외과의원 이상권가정의학과의원 이수영내과의원 이수형내과의원 이순형내과의원 이승현내과의원
이안의원 이앤오내과의원 이영승내과의원 이영식이비인후과의원 이외과의원 이원교내과의원 이지내과의원 이지영소아청소년과의원 이진홍내과의원
이춘구의원 이충섭내과의원 이태관내과의원 이형룡내과의원 이홍내과의원 이홍철소아청소년과의원 익산내과의원 익산미소요양병원 익산병원
인천세종병원 임계숙이비인후과소아청소년과의원 임실내과의원 임실중앙요양병원 임지현내과의원 임진한내과의원 ㅈ 장기영정형외과의원 장내과의원
장대영소아청소년과의원 장앤김정신건강의학과의원 장용범내과의원 장현철내과의원 장희성내과의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내과의원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영민피부과의원 전일한병원 전종율소아청소년과의원 전종일내과의원 전주E재활의학과의원 전주더블유한방병원 전주정드림요양병원
전주가정의원 전주고려병원 전주내과영상의학과의원 전주늘사랑요양병원 전주드림내과의원 전주병원 전주비타민의원 전주선요양병원 전주에스한방병원
전주우리들병원 전주중앙요양병원 전주한양내과 전주항장외과의원 정내과의원 정덕영안과의원 정성산부인과의원 정영태안과의원 정읍항도외과의원
정읍내과의원 정읍사랑요양병원 정읍시립요양병원 정읍아산병원 정한샘내과의원 조수영소아청소년과의원 조용원정형외과의원 조은내과의원
조은마디의원 종삼의원 주내과의원 준피부과의원 중앙가정의학과의원 중앙마취통증의학과 중앙의원 중앙정신건강의학과의원 지구촌내과의원
지리산한방병원 진이비인후과의원 ㅊ 차경연산부인과의원 차병원 참병원 참사랑요양병원 참조은신내과의원 참좋은내과의원 척척마취통증의학과의원
청록요양병원 청춘내과의원 최상인내과의원 최수영내과의원 최수인내과의원 치유숲정신건강의학과 친절한신경외과의원 ㅋ 코뿔소내과의원
키본정형외과 키즈드림아이엠씨병원 ㅌ 탑가정의학과의원 탑신경외과재활의학과의원 탑이비인후과의원 튼튼마디의원 튼튼한방병원 ㅍ 편한내과의원
평화로운내과의원 평화맑은신경과의원 포도나무요양병원 푸른가정의학과의원 푸른내과의원 푸른산부인과의원 푸른안과의원 피노키오소아청소년과의원
ㅎ 하가내과의원 하나외과의원 하나이비인후과의원 하나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하늘가정의학과의원 하늘내과의원 학문외과의원 학산요양병원
한국노인요양병원 한국신경외과의원 한국요양병원 한길요양병원 한나여성의원 한마음산부인과의원 한마음안과의원 한마음요양병원 한빛정형외과의원
한사랑마취통증의학과의원 한사랑산부인과의원 한사랑요양병원 한서요양병원 한솔요양병원 한양정형외과의원 한일정형외과의원 한호수내과의원
항도외과의원 해강내과의원 해맑은요양병원 해맑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해빛한방병원 행복나라요양병원 행복한요양병원 허기석내과의원 허원영내과의원
혁신가정의학과 혁신이비인후과의원 혁신편안내과의원 현대가정의학과의원 현대내과의원 현대이비인후과의원 현대중앙안과의원 현대통증의학과의원
현정례내과의원 혜성병원 호남누가내과의원 호성전주병원 홍영민내과의원 홍외과의원 활기찬의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효사랑전주요양병원 효자내과의원
효자이비인후과의원 효정내과의원 효천연합내과의원 효천한방병원 힘내라정형외과 힐링요양병원

10월 17일(목)
의학채널 비온뒤

뇌동맥류(꽈리)

신경외과 **허승곤 자문교수**



뇌동맥류는 뇌혈관이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는 질병입니다. 이러한 뇌동맥류는 파열되어 심각한 뇌출혈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뇌동맥류(꽈리)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는 시간을 전주예수병원 뇌동맥류 센터(JESUS Brain Aneurysm Center, JBAC)
센터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대한민국 명의 허승곤 자문교수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월 8일(일)
JTV 토크 닥터

대장암

대장항문외과 **정진용 과장**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45명에게 발생하며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하는 암, 바로 대장암인데요.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방식으로 인해 대장암 환자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발병률이 높지만 조기에 발견할 경우, 치료 성공률 또한 높아 '두 얼굴의 암'이라 불리는 대장암! JTV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예수병원 대장항문외과 전문의 정진용 선생님과 함께 대장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MC news

환자안전의 날 기념행사



본원 로비에서 지난 9월 '환자안전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운영 중인 중앙환자안전센터는 2024년 '다 같이 해서 더 가치 있는' 환자안전 캠페인을 주제로 진단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예수병원은 전 직원 및 환자·보호자·내원객을 대상으로 각각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유방촬영술 영상분석 AI 솔루션 도입



유방촬영술 영상분석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MMG'를 도입했다. 국내 인공지능(AI) 진단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AI 의료가 진단 보조로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다수 발표되고 있으며 국내·외 병원에서도 AI 영상 진단 도입이 앞당겨 지고 있다.

장애친화산부인과, 장수군민 찾아서 의료 상담



예수병원 의료진이 찾은 장수 지역은 의료시설이 부족해 의료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산부인과의 경우 상급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의료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의료 상담 및 교육은 장수군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이해교육과 여성질환 상담을 통해 장애인의 주체적인 삶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콜센터, 장애친화사업장으로 지역사회 동반성장



많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을 위한 최고의 복지는 그들이 자립할 수 있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라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과 일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장애인 일자리는 찾기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예수병원(병원장:신충식) 콜센터가 세심한 교육과 돌봄으로 장애친화사업장으로 자리 잡아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지난 10월에 열린 보건복지부 '제12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에서 연명의료 결정제도 분야에서 인식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공로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신종감염병 위기 대응 모의훈련



감염관리실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모의훈련은 유행성 감염병 발생 상황에 대비해 더욱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와 관계자들의 감염관리 인식 향상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 예수병원-미국 월드미션대 '인재·연구 교류' 협약



전북 전주 예수병원은 미국 월드미션대학과 교환·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인적 자원 교류 ▲연구 지원 교류 ▲글로벌 서비스 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업무 협력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했다.

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서 1등급



이번 평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만 40세 이상 환자들을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는 ▲폐기능검사 시행률 ▲지속방문 환자 비율 지표 ▲COPD로 인한 입원경험 환자비율 ▲COPD로 인한 응급실 방문경험 환자비율 등을 평가했다. 예수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91.3점을 기록해 1등급을 얻어냈다.

심평원 '결핵 적정성 평가' 1등급



지난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동안 결핵 신환을 진료한 전국 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결핵균 확인검사 실시율 △통상감수성검사 실시율 등 4개의 평가지표와 △치료성공률 모니터링 지표를 평가해 종합점수 99.2점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 예수병원은 전체 평균점수 94.3보다 평균점수가 높고 상급종합 병원 평균점수 97점보다 상회하며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았다.

예수병원신협, 발전기금 1,000만원 전달

예수병원신협은 병원 발전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예수병원신협은 병원 발전기금을 2011년도부터 전달해왔다. 주명진 예수병원신협 이사장은 "예수병원 개원 126주년을 축하하며, 장기간의 의료공백 사태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의료현장을 지켜낸 의료진에게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 제18대 전북병원회장 취임



전북병원회는 14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제49차 정기총회를 열고 전임 회장인 서일영 원광대병원장과 신임 신충식 예수병원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신충식 예수병원장은 "급격한 의료 환경 변화 속 국민에게 신뢰받는 병원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해 겸허한 자세로 소통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심포지엄 개최

예수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2022년 전국 최초로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이며, 여성 장애인이 편안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예수병원의 장애친화 산부인과 사업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이드라인 제시, 장애인 산모 관리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대한민국 최초 민간의료 선교병원이자
호남의 첫 의료기관인 예수병원이 개원 126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오랜 세월, 불꽃 같은 삶을 살며 사랑과 봉사 정신을 실천하던
설립자 마티 잉골드의 정신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담은 손길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예수병원은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진심 어린 의료 서비스를 펼칠 수 있었습니다.

따스한 손길이 모이면 건강한 미래를
밝힐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북의 건강한 미래를 밝혀주세요.

후원 형태
현금, 부동산, 유가증권, 채권, 귀중품, 기자재, 로열티 등 모든 물품과 자산이 가능합니다.

후원 방법
일시불 또는 분할 납부 모두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지로, ARS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발전 기금 후원 계좌
예금주 (재)예수병원 유지재단
전북은행 510-23-0317364
국민은행 751901-01-465000
농협 658-01-031404

도움주신 분 (9~10월)

1천 5백만원이상
바자회수익금

1천만원이상
GS리테일
정석케미칼 김용현
현대자동차

2백만원이상
선교사묘역교회
아나바다수익금

1백만원이상
강미연
강종대
변다우
전서노회
정읍중앙교회
조충환

50만원이상
㈜전북교통광고
대한예수교장로회전주예수교회
태양기계(주)

10만원이상
고창성민중앙(임근영)
구본식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다오라교회
박민숙
새군산교회
선한목자교회
심선자
이노경
이재성
이진희
장훈
전세계할인쇼핑점
전주동인교회
태인교회

후원 방법에 관해 예수병원 발전후원회(063-230-8864)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병원 **진료일정 안내**

대표전화 1899-1843, 230-8114, 080-077-7575 **응급센터** 230-8282 **진료협력센터** 230-8989

※ 진료일정은 **2024년 11월 기준**이며 각 과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진료 전에 전화 확인 바랍니다.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내과 가정의학과 230-1510	조충환	노인의학, 성인병, 암검진, 금연	월, 수, 목	월, 목
	이진희	성인병, 건강증진, 영양치료, 비만관리, 금연	화, 수	화, 수
	이재성	성인병, 암검진, 건강증진, 영양치료, 금연	월, 화, 금	월, 금
	최미림	건강검진(위장관, 간, 담도, 췌장질환)	월~금	월~금
	김호철	건강검진(치과)	월~금	월~금
	오종은	건강검진(부인과)	월~금	월~금
	이종민	만성질환, 성인병, 검진초음파	-	화, 수, 목, 금
내분비내과 230-1300	송선경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다공증, 내분비질환	월, 수, 목, 금	월, 수
	김지혜	당뇨병, 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내분비질환	월, 화, 목, 금	화, 목
	백초옥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월, 수, 목	월, 화, 금
	김선희	당뇨병, 갑상선질환, 골대사질환, 부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증후군, 내분비질환	화, 수, 금	수, 목, 금
류마티스 내과 230-1300	이연경	관절염, 통풍, 루푸스, 근섬유질환, 결체조직질환	월, 화, 목	월, 화, 목
소화기내과 230-1300	조진웅	위장관질환, 치료내시경	월, 화, 목	-
	조용근	간, 위장관질환	월, 목, 금	화
	김지웅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화, 수, 금	화
	정금모	간, 위장관질환	해외연수 (~24.11.30)	
	양민아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화, 목, 금	-
	김병선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월, 수, 목	-
	송재선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화, 목	월, 금
	이원동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월, 수	월, 금
	양성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초음파	수, 금	수
	이순관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월, 금	수, 목
	박상진	간, 위장관, 담도, 췌장질환	-	화, 목
	이성욱	간, 담도, 위장관, 췌장질환	-	목
	안종남	간, 담도, 위장관, 췌장질환	-	수
순환기내과 230-1350	류제영	심장, 고혈압,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월, 화, 목, 금	-
	전성희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성인선천성 심질환	수, 금	수, 금
	박종필	심장,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말초동맥질환시술	월, 화	수, 목
	송지은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장판막질환, 심부전, 부정맥	수, 목	월, 목
	오성식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관상동맥중재술, 심부전, 부정맥	월, 화, 목	화
	김선화	고혈압, 고지혈증, 부정맥, 실신, 인공심박동기, 제세동기, 전국도자절제술	수, 금	수, 금
	박선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금	화, 금
	김다혜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화, 목	월
	이지하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 심부전	월, 수	월, 목
	문혜림	심장, 고혈압, 고지혈증,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증, 관상동맥중재술	월, 수	-
신장내과 230-1300	선인오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신장이식	월, 화, 목, 금	목
	조아영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수	화, 목, 금
	오주환	신장, 고혈압, 혈액투석, 복막투석, 사구체질환, 약물중독	월, 화	월, 화, 금
	이하은	고혈압, 급성신손상, 만성콩팥병, 사구체질환,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이식, 약물중독	수, 목, 금	월, 수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내과 혈액종양내과 230-1300	박효숙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화, 수, 금	월, 목
	이가든	혈액, 혈액/고형종양, 항암요법, 조기암진단	월, 목	화, 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230-1360	곽진영	폐암 및 폐종양, 폐결절,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월, 수, 목	월
	이중철	중환자의학,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화, 금	월, 화, 금
	최경화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알레르기질환, 간질성 폐질환(폐섬유화증), 호흡기감염질환	월, 화, 목	화, 목
	양현주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결핵 및 호흡기감염질환, 알레르기질환	월, 목	수, 목
	김병관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수, 금	월, 수, 금
	김성민	호흡기감염질환, 천식 및 만성기도질환, 폐결절, 만성기침	화, 금	수
마취통증의학과 230-1580	김유일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월, 수	월, 수
	이지혜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화	화
	권영은	신경근골격계 통증치료 및 수술실 마취관리	월~금	월~금
	오지윤	부인마취, 정형외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허현주	부위마취, 산과마취, 노인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김정희	노인마취, 정맥마취, 복강경마취, 수술 후 통증관리	월~금	월~금
방사선종양학과 230-1520	이희관	두경부암, 폐암, 소화기암(식도, 간, 위, 대장, 직장), 비뇨기암(방광, 전립선)	월, 화, 수, 금	월, 화, 수, 목
	박혜리	유방암, 자궁암, 임파종	월, 화, 금	수, 목
병리과 230-8190	이광민	조직병리, 세포병리, 분자병리	월~금	월~금
	주명진	조직병리, 세포병리, 면역병리	월~금	월~금
	유설봉	폐병리	월~금	월~금
비뇨의학과 230-1440	천민우	남성비뇨, 요로결석,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화, 수, 금	화, 수
	이강석	여성비뇨, 소아비뇨, 비뇨기종양, 전립선질환	월, 목	월, 목, 금
소아청소년과 230-1390	장영택	소아신경질환, 간질, 발달장애, 감염	월, 화, 수, 금	화, 금
	박신애	소아심장질환(심장초음파), 성조숙증, 저신장, 내분비질환	수, 목	화, 수
	김미경	소아위장관, 간질환, 변비, 비만, 영양, 혈액질환	월, 금	월, 수
	호요한	고위험 신생아, 미숙아질환, 선천성 대사장애	수	-
	박상호	신장, 성장, 신생아 질환	월, 화, 금	월, 목
	곽현미	소아 호흡기	목	월, 수, 목, 금
	임선웅	소아응급	-	-
	최종림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김경녕	소아응급	평일 야간, 주말	
성형외과 230-1560	강동구	안면거상, 쁘띠성형, 눈코성형, 지방이식흡입, 재건외상	월, 수, 금	월, 수, 금
신경과 230-1570	하연수	뇌혈관질환, 뇌졸중, 뇌경색, 두통	월, 목, 금	월, 화
	정병민	두통, 파킨슨병, 뇌전증	화, 수, 목	월, 수, 금
	장혁수	치매, 파킨슨병, 말초신경염 질환, 어지럼증	월, 화, 수, 금	화, 목
신경외과 230-1420	허승곤	뇌동맥류, 뇌혈관 기형 수술	-	월, 수
	신동규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월, 수	월
	공태식	뇌혈관질환, 뇌졸중, 혈관 내 수술, 응급환자진료	월, 목	목
	최은석	목, 허리 디스크 협착증 수술 및 비수술 치료, 척추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수, 금	수, 금
	김효준	뇌졸중, 뇌종양, 퇴행성 질환, 간질, 외상, 응급환자진료	화, 수, 금	월, 수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신경외과 230-1420	신우람	척추, 신경통증, 외상, 뇌졸중, 응급환자진료	화, 목	화, 목
안과 230-1450	송영진	안성형, 일반안과	월~금	월, 수, 목, 금
여성의학센터 230-1500	김경진	부인과종양,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월, 수, 금	월, 수
	김경아	고위험산모, 복강경수술, 폐경기장애	월, 목	월, 목
	홍상기	고위험산모, 내시경수술, 비뇨부인과	화, 금	화, 금
	문정범	난임, 시험관아기시술, 일반산과, 일반부인과, 내시경수술	수, 금	수, 금
	정태원	내시경수술, 일반산과, 부인과질환	화, *수, 목 *장애친화 산부인과 진료	화, 목
영상의학과 230-8380	유은애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금	월~금
	김수정	뇌신경, 두경부, 척추	월~금	월~금
	이미숙	흉부	월~금	월~금
	김윤환	인터벤션	월, 화, 수, 목	월, 화, 수
	강동민	복부, 비뇨생식기	월~금	월~금
	정수연	흉부·심혈관계	월~금	월~금
	노경희	유방	월~금	월~금
	박범균	인터벤션	월~금	월~금
	소영수	근골격계	월~금	월~금
	최진솔	복부, 비뇨생식	월~금	월~금
일반외과 230-1400	김은영	외과응급	금	월, 목
	문재영	소화기질환, 일반외과	수, 목	금
간담췌외과 230-1400	김우영	간, 담도, 췌장, 탈장, 복강경	화, 금	화, 금
	이유니	간, 담도, 췌장, 탈장, 화상, 복강경, 외상, 일반외과	월, 수	화, 수
대장항문외과 230-1400	김갑태	대장암 및 대장항문질환, 복강경, 탈장	월, 목	월, 목
	정진용	대장암, 항문질환, 탈장, 소아외과, 일반외과	화, 금	화
상부위장관외과 230-1400	이종명	위암 및 상부위장관암, 복강경, 비만수술	월, 목	월, 목
	양유성	상부위장관(위, 소장), 일반외과, 비만수술, 화상	수	월, 수, 금
유방·갑상선외과 230-1400	김철승	유방 · 갑상선	화, 금	화
	김예정	유방 · 갑상선, 일반외과	월, 목	목
	최은혜	유방 · 갑상선, 일반외과	수, 금	월, 수, 금
혈관이식외과 230-1400	김철승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혈관중재시술, 혈관·이식	화, 금	화
	한규담	신장이식, 하지정맥, 투석수술, 대동맥·혈관중재시술, 혈관·이식, 유방·갑상선	월, 수	화
	김하람	유방 · 갑상선	화	목, 금
소아외과	김예정	소아외과	월, 목	목
흉부외과	서연호	일반 폐질환, 다한증, 기흉	수, 금	월
국제진료소	이대영	외국인진료, 일반외과, 비만수술, 완화의료(호스피스)	목	수
응급의학과 230-8280	전우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김호권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전용규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이상경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박홍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백종원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오근호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심동오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진료과	전문의	전문진료분야	오전	오후
응급의학과 230-8280	유혁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오준협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최형수	전문심폐소생술, 전문외상처치, 중독학	월~일	월~일
이비인후과 230-1480	천경두	귀(중이염, 난청), 어지럼증	월, 목	월, 목
	이시영	코(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어지럼증	월, 화, 금	화
	한주희	두경부, 이비인후과 일반질환, 어지럼증	수, 목	월, 수, 금
재활의학과 230-1460	윤용순	뇌신경재활, 요통 및 운동치료, 하지교정, 소아재활, 부정렬증후군, 족부클리닉	월	월
	윤석봉	중추신경계재활(뇌 및 척수손상), 근전도, 노인재활, 연하재활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이광재	뇌졸중재활, 심장재활, 신경근골격계통증, 오십견, 근골격초음파클리닉, 보톡스클리닉	월~금	월, 수
	최줄리	노인재활, 연하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	-
	유기삐	뇌신경재활, 소아재활, 족부클리닉, 통증재활, 호흡/연하재활, 근전도	화, 수, 목, 금	화, 목
	김은실	노인재활, 뇌신경재활, 근전도, 신경근골격계통증	-	-
	이정후	중추신경계 재활, 신경 근골격계통증, 의지/보조기	-	-
정신건강의학과 230-1550	최말례	여성정신건강클리닉, 정신치료, 기분장애(우울&조울), 불안장애(공황장애, 사회공포증), 핫병, 신체형장애, 불면증, 조현병	월, 화, 목	수
	나의현	중독 정신장애, 청소년정신장애, 적응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불안장애(사회공포증), 기분장애(우울), 불면증	화, 수, 목	월, 화, 목
	한명일	치매클리닉, 노인정신건강, 기질성 뇌기능저하,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	월, 화, 목	목
정형외과 230-1430	정의섭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월, 수	-
	신충식	견·주관절, 슬관절(관절경, 인공관절)	월, 목	-
	김태호	고관절(인공관절), 골반, 외상	화, 금	화, 금
	김종길	외상, 족부, 족관절	화, 목	화, 목
	김경태	손목질환, 손목관절내시경, 외상, 스포츠손상	월, 수	월, 수
	송경진	척추	화, 목	-
	이상영	슬관절(무릎관절), 족부족관절, 스포츠의학	수, 금	월, 수
진단검사의학과 230-8751	김영숙	임상미생물검사, 면역혈청검사, 분자세포유전학검사, 임상경검학검사	월~금	월~금
	최인선	분자생물학, 수혈의학, 특수화학, 조직접합성검사, 진단면역	월~금	월~금
	배태원	진단혈액검사, 임상화학/요경검, 검사정보학	월~금	월~금
치과 230-1540	송윤관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목, 금	월, 화, 목, 금
	최현미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수, 목	월, 수, 목, 금
	박종덕	보철(틀니, 브릿지, 심미보철), 치주(잇몸치료), 보존(충치치료, 근관치료, 소아치료), 임플란트	월, 화, 수, 금	월, 화, 수, 금
피부과 230-1490	이진호	감염성 피부질환, 습진질환(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피부종양	화, 목, 금	-
	송지섭	일반 피부질환, 피부 레이저	화, 수, 금	월~금
	이어진	일반 피부질환, 알레르기, 아토피, 건선, 여드름, 피부 미용	월, 수, 목	-
핵의학과 230-8780	김민우	근골격, 종양, 심장, 신경계, 소화기, 일반핵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금	월~금
	문은하	근골격, 종양, 심장, 신경계, 소화기, 일반핵의학, 방사선면역검사	월~금	월~금

You Make Me Warm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병원 - 예수병원

예수병원
Presbyterian Medical Cente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Tel. 063.230.8114 www.jesushospital.com